**현관문 시나리오**

박범준, 원준혁, 이재범, 장준형

**#프롤로그**

밤 퇴근길

미행을 당하는 한 여성

부리나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다.(사방을 경계하며)

문을 열고 닫는 순간 어느 남자가 문을 열고 닫기면서 (비명)(남자 손에 특정 문신)

-블랙아웃-

***Title. .현관문***

**S#.1 예진의 집**

(집안 InSert)

커피포트에는 물이 데워지고 있고 TV는 틀려있다.

통화(서로 안부 연락)를 하는 예진은 한손으로 커피포트를 들고 머그컵에 따른다.

은서 : 야 너 그거 봤어?

예진 : 뭘?

은서 : 그 있잖아.. 아! 지금 뉴스 틀어봐봐 마침 나온다

예진 : 뉴스?

한손은 핸드폰, 한손은 머그컵을 든 예진이는 리모컨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머그컵을 내려놓는다

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꾸는 예진

TV에서는 뉴스가 나온다

*오늘 새벽 2시..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 남자가 순식간에…*

예진 : 이거 뭐야?

은서 : 그니깐..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..

예진 : 사람 또 무섭게 왜 갑자기 이러는거야..

은서 : 아맞다 너 예전에 비슷한일 있었잖아

예진 : 야 그 얘기는 또 왜꺼내.. 주책이야

은서 : 아니 그때 일이랑 지금 일이랑 비슷한거 같은데?

 범인은 잡혔었나?

예진 : 에휴.. 잡혔으면 다행이지..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데..

은서 : 안잡혔어? 근데 저런 일이 생기니.. 설마.. 아니겠지?

예진 : 야! 그런 소리 하지 좀 마! 사람 무섭게.. 됐고 계속 그런 얘기 할거면 끊어!

(InSert)

등교하는 예진, 학교 수업듣는 예진, 밥을 먹는 예진, 친구들과 회의하는 예진, 강의실에서 과제하는 예진

S#.2 회의실

컴퓨터로 과제를 하는 예진, 은서, 민석

은서 : 자 그럼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자 가자~

>은서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함

예진 : 아.. 나는 마무리해야될 과제가 있어서 먼저 가~

민석 : 흠.. 알겠어 먼저 갈게~

>은서와 민석은 자리를 떠나고 예진은 홀로 과제를 한다

Jump
(시간이 지남)

예진 :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….. (짐을 싸고 간다)

S#.3 엘리베이터 앞

>예진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.

>엘리베이터 쪽창문에 이상한남자가 스윽 지나간다.

(예진은 보지 못한다)

S#.4 예진의 귀갓길.

으스스한 분위기에 핸드폰을 하면서 집에가는 길.

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든다.

예진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일없는듯 앞을 보고 놀란다.

예진 : (귀신을 본 것 처럼 소리치듯이) 까~~~~악

* 1부 끝 –

S#.4 예진의 귀갓길.

예진이 뒤를 보고 다시 앞을 보고 놀란다.

예진 : (귀신을 본 것처럼 소리치듯이) 까~~~악

민석 : 아 뭐야. 왜이렇게 깜짝놀래

예진 : 뭐야 괜히 놀랬네 장난 좀 치지마. 그런데 집에 간거 아니였어?

민석 : 편의점갔다가 지나가길래 장난 좀 치고 싶었어

예진 : 진짜 나한테 장난 좀 그만쳐

민석 : 알겠다고 장난 안칠께. 빨리가서 밥먹어야겠다. 조심히 집에가

예진 : 그래 조심히 집에가 나도 집가서 밥먹어야겠다.

그렇게 예진과 민석이 헤어지고 예진은 집으로 걸어간다.

S#.5 예진의 집

예진: 아 배도고프고 출출한데 또 만들어 먹기는 귀찮고 배달시켜 먹을까?

핸드폰을 만진다. (주문시킨다)

시간이 흐른다.

예진: 여보세요? 제가 아까전 000치킨을 시켰는데 제가 주문했던거랑은 다른 치킨이 왔네요?

직원: 아,,네! 제가 확인해봤는데, 옆집이랑 바뀌었네요. 죄송합니다.

예진: 아,,흠 네 알겠습니다. 옆집에 가서 이참에 인사나 드려야겠다.. 하

S#.6 복도

띵동~

예진: 안녕하세요 저 옆집이웃인데요. 제가 치킨을 주문을 했는데 저랑 치킨이 바뀌어서요.

범인: 네.. 잠시만요…(끼이익)

*여자가 범인의 얼굴과 손을 보고 놀란다.*